Dicon Essay

# 월드컵문화와 콘텐츠

**축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가진 운동 종목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는 하나' 라는 동질성을 회복해 주기도 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은 큰 수확이다.**

글 **안명옥** 시인

축구는 공 하나와 발만 사용하는 가장 원시적인(?) 운동이다. 마치 동물이 들판을 뛰어 다니듯 그렇게 야성적이고 원시적인 운동이다. 그래서일까. 야구의 규칙이 복잡한데 반해 축구는 비교적 간단하다. 불문법국가인 영국에서 축구가 인기가 있고, 성문법 국가인 미국에서 야구가 인기가 있는 점이 흥미롭다.

서울올림픽이나 북경올림픽처럼 도시가 주체가 되어 유치하는 올림픽에 비해 월드컵은 국가가 유치하는 경기이다 보니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제발전에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 국가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이보다 더 큰 이벤트가 없는 셈이다.

## 문학과 월드컵

월드컵은 전 분야에 막강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 중에서 문학과 월드컵은 많은 시를 만들어 내게 했다. 권터그라스의 시에는 '공이 공중에서 날아올랐다.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향했다. 오프사이드였다' 라는 구절이 있다.

2002년 월간「문학사상」7월호에서는 월드컵을 소재로 한 시 모음이 실리기도 했다. 월드컵 4강 진출기념 경축시 모음에 유경환의 〈그들은〉, 김후란의 〈우리는 뛰었다 그리고 이겼다〉, 유안진의 〈멋지다, 눈부시다, 황홀하다〉, 이가림의 〈

거대한 축제〉, 오세영의 〈아아, 아틀라스의 힘이여〉, 신달자의 〈이제 마침표를 찍어라〉, 문정희의 〈축구, 그리고 붉은 심장〉, 노향림의 〈아, 대한민국〉, 나태주의 〈울음의 물결〉, 송구권의 〈4강을 넘어 세계를 넘어〉, 최동호의 〈공놀이 하는 달마의 붉은 심장〉등이 소개되었다.

시인들이 모여 만든 축구클럽으로 글발팀이 있다. 원래 '시발' 이라 했는데 어쩐지 음이 욕하는 것 같아 '글발' 로 고쳤다. 필자도 월드컵 이후 축구가 좋아져서 가입하였다. 처음에는 여러 팀과 경기를 할 때마다 자주 패배를 하고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모대학 문창과 학생들과의 경기에서는 마침내 이겼다. 40대가 주축인 시인들이 한창 나이인 20대 팀을 이긴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요즘 젊은이들이 악바리 근성이 없고 체력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컴퓨터 앞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거나 점점 사라지는 운동장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라 그런가보다.

덩치는 커도 콜라를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이라 뼈가 약해진 것 같다. 강골이나 소위 깡다구가 없다. 그것이 이번 축구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이 승리가 오랫동안 팀웍을 갖춘 시인들의 실력이 좋아진 것이겠지만 이 역시 어렸을 적부터 뛰어놀던 '가닥' 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 놀 기회가 거의 없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또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쳇바퀴 생활을 하며 온종일 공부에만 파고드니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어린이나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온다. 함께 놀 아이를 만나기 위해 학원에 보낸다는 어느 학부모의 말이 생각났다.

축구는 단순한 힘만으론 이길 수 없는 스포츠다. 고도의 사고력과 순간의 판단력이 요구된다. 활자 문화를 넘어 영상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컴퓨터나 영화시대에서도 활자문화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은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고 감각적이다. 책을 잘 읽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많이 뛰어놀게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고력이나 창의력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게 하는 게 아닐까.

## 응원가

"오~필승 코리아, 오~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이라고 소리치면 차량마다 경적을 "빵빵빵 빵빵" 울리며 응답을 해주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축제의 분위기였다. 그야말로 열광의 분위기였다.

음악이 젖소의 우유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거나 비닐하우스 화원의 꽃들의 색과 향을 진하게 한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2002 월드컵 때는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음악의 힘은 대단했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을 잊지 않도록 해 준 게 다름 아닌 〈아리랑〉이였듯 월드컵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이 단연 응원가가 아니었을까.

"대~한민국/짝짝짝짝짝"의 박자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도 박자의 전파력과 효과가 대단했기 때문이리라. 작곡과 교수님께 월드컵의 박자가 그렇게 성공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다. 월드컵의 응원 구호인 "대~한민국/짝짝짝짝짝"의 박자는 2/4박자로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 4/4박자의 빠른 템포로 보아야 더 타당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음악에서의 모티브는 2마디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짝짝짝짝짝"은 2마디의 동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 동기는 국악장단의 음과 양의 구조로 해석할 때, 대와 민국은 양(또는 에너지가 많은 남성)을 의미하며, 짝짝짝짝짝의 가운데 짝을 제외한 4회의 짝 또한 양(또는 에너지가 많은 남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응원 구호는 강한 엑센트를 동반하므로 매우 많은 에너지의 역동성을 느끼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서양적인 리듬과 국악적인 리듬이 적절하게 혼합된 리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단은 월드컵이라는 전세계 축제와 함께 수백만 명이 동시에 외치며 에너지의 충만을 느꼈던 것이다.

모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국민을 잘 뭉치게 하는 힘이 응원가의 박자 속에 있다고 분석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집중과 신바람 넘치는 국민성도 있겠지만 아마도 박자 속에 과학적 감성코드가 들어 있는 모양이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윤도현의 록 버전 애국가 월드컵 송이나 붉은 악마의 새 응원가, 클론의 응원가 등 다양한 노래가 콘텐츠로 만들어 지는가 하면 월드컵에 맞는 율동으로 꼭짓점 댄스나 포크댄스 같은 것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조금은 짜증나려고 한다. 순수해야 할 월드컵 응원이 상업성에 너무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리고 너무 응원가가 많고 꼭짓점 댄스도 누구나 따라 하기엔 부담스럽다. 하나로 강하고 짧게 통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스포츠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승리에만 집착하면 선수들도 부담을 갖고 보는 팬들도 부담을 느낀다. 스포츠는 즐기는 것이다. 성적 제일주의가 운동에서도 적용되는 현실이 아쉬울 때가 많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하는 그

과정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 혹자는 지난 한일월드컵에서 우리 붉은 악마 응원의 엄청난 에너지에 상대방 선수들이 위축이 되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좋은 경기를 보고 싶어 갔는데 승리 쪽으로만 너무 몰아가는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 선입견의 파괴

월드컵은 축구에 별 관심이 없던 여자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축구를 좋아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남편과 채널을 가지고 다투던 아내들이 오히려 남편과 부둥켜안고 열광적인 축구팬이 된 것이다.

필자도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선수나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을 털어 버렸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돈이 있어야 운동을 잘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선진국의 스포츠 선수들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한다. 이제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미래 꿈을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한다. 축구는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한 스포츠다. 빠른 판단으로 공을 어느 정도의 각도로 차야 골인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또한 생각하며 공을 몰고 다녀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공만 몰고 다녀서는 안된다. 팀원끼리의 호흡이나 단결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축구는 원시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붉은 색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했던 것도 월드컵이다. 붉은 색이 빨갱이를 뜻한다고 하여 꺼려하는 '레드 콤플렉스'가 있었다. 붉은 옷을 입고 열렬히 응원하는 붉은 악마들에 의해 붉은 색은 좋은 이미지로 변해갔다. 광화문이나 시청 앞할 것 없이 전국의 광장과 운동장마다 붉은 물결이 넘실거렸다.

지난 월드컵에선 태극기가 전 국민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간 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극기로 옷을 만들어 입는가 하면 두건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어디 태극기뿐인가. 타악기도 많이 팔렸다고 한다. 모자도 많이 팔리고 얼굴에 그림을 그리거나 몸에 그림을 그리는 바디페인팅도 인기가 있었다. 머리띠도 많이 팔리고 손바닥에 착용했던 캐스터네츠도 많이 팔려나갔다.

### 범죄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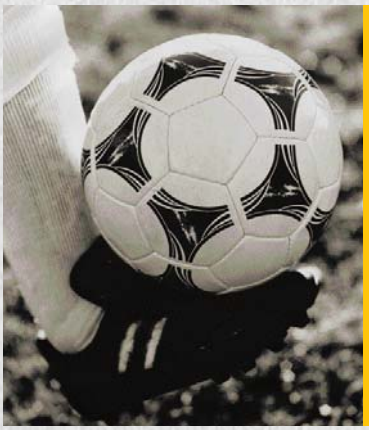
도둑이나 소매치기들도 월드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 긍지를 느끼며 선해지지 않았을까. 왕년에 나도 축구 좀 했었다고 한껏 어깨를 추스르지 않았을까. 축구에 열광하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노린 소매치기는 없었으리라.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는 없다고 하는데 그때 길을 가다보면 주인들이 월드컵 4강 기념으로 공짜 술을 돌린다거나 음식을 서비스하거나 하는 월드컵 콘텐츠가 눈길을 끌었다.

### 거리응원과 광장문화

거리와 광장에서의 응원문화는 우리 국민에게 일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브랜드화되는 시기였다. 또한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 있게 응원하는 거리문화나 광장문화의 응원은 감동적이었다.

얼마 전 호수공원에 목련이 떨어지는 것이 하도 허무하다며 목련 길에서 만나



자원봉사 · 관광 · 통역 · 시민의식 등 유형, 무형의 월드컵 자원을 발전시켜 더욱 많은 관광 자원과 잘 연결시키는 콘텐츠 개발이 일어나야 한다. 월드컵은 문화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자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운동 겸 나간 적이 있다. 하얀 목련과 자목련이 거리에 나란히 줄지어 서 있어 눈부셨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목련꽃 그늘 아래서' 라는 노래를 불렀다.

호수공원 안에서도 노란 산수유 · 벚꽃 · 진달래 · 개나리가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단연 목련이 최고였다. 떨어지는 자세가 눈물겹다. 한 순간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아직도 하얀 목련을 보지 못한 회색의 도시에 사는 이웃들이 목련을 볼 수 있도록 바람이 불지 않길 기원하며 걸었다. 그때 만난 지인이 노인 복지대학에서 꼭짓점 댄스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호수공원 광장에서 꼭짓점 댄스를 배웠는데 참 재미있고 즐거웠다. 이제 춤이구나!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문화와 광장은 노래뿐 아니라 춤으로 또 한 번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댄스는 여럿이 하면 더 재미있고 멋지다고 한다. 올림픽 응원가를 흥얼거리다가 다시 아리랑을 부르며 추어도 절묘하게 장단이 맞아 떨어지고 좋았다. 독일 올림픽엔 이 꼭짓점 댄스가 광장을 메울 것이니 혹 이 댄스를 못 배운 사람들은 응원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나도 그 한 사람이 될까봐 열심히 배웠다.

월드컵 때 붉은 티를 안 사고 버텼다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붉은 티를 서너 벌이나 샀다. 아이들에게도 입히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비록 붉은 악마가 주도 했다지만 그렇게 한일 월드컵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한국의 길거리 응원문화를 창조해 낸 것이다.

한 후배는 어머니와 함께 광장에 나가 응원을 하던 것이 너무 좋았다며 언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그런 하나 됨을 만끽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나 또한 일부에서는 마치 광신도처럼 너무 광기에 찬 것이 싫어서 집안에서 혹은 가게에서 혼자 TV를 보았다고 했다. 소수의 의견이나 생각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월드컵을 보면서 원시의 들판의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는 것 같았다. 전쟁에서도 흥분을 하면 총알이 마구 날아오는데도 오히려 일어나 돌진하며 총을 쏘아대듯 우리에겐 어떤 가득 찬 에너지를 분출할 구멍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쾌감 같은 것이 없는 삶을 살다보니 대신 스포츠가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 스포츠가 그 욕망을 대신 채워주고 있는 게 아닐까. 올림픽처럼 여러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월드컵은 누구나 뭉쳐지기가 더 쉽다고 본다.

일부에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를 국민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비약이 아닐까. 오히려 스포츠가 한마음 되도록 해주는데는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힘이 있다. 누가 강제로 모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들었을까. 이번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당에서도 역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렇게 바쁘게 뛰고 걷던 발길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가 이렇게 신바람 나게 해주는데 정치는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아쉬웠다.

### 문화콘텐츠와 월드컵

월드컵은 우리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일조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나 한국 상표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던 월드컵. 이것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얼마나 잘 활용해 국가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리라. 월드컵의 성공을 수출품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 아닐까.

한일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그것도 두 나라 공동으로 개최돼 대회의 성공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당초 걱정하던 테러 위협은 물론 광적인 관중들의 난동이나 약물 복용 같은 우려를 씻어낸 완벽한 월드컵으로 우리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심어줬다.

월드컵을 당당히 치러 낼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고, 이를 평가받은 것도 소중한 성과였다. 자원봉사 · 관광 · 통역 · 시민의식 등 유형, 무형의 월드컵 자원을 발전시켜 더욱 많은 관광자원과 잘 연결시키는 콘텐츠 개발이 일어나야 한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특수도 있겠지만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콘텐츠 개발 기업들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월드컵은 문화콘텐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2002 월드컵 때 다 쓰러져가는 기업이 월드컵 온라인 방영권을 따내고 대박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많은 콘텐츠 상품들이 히트를 쳤다.

위성 DMB폰의 사용자가 적어 사장될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하면서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번 월드컵도 DMB나 모바일 시장 쪽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